

최선 다한 그대...환희도 눈물도 모두 빛난다



금빛 찌르기 오상욱(펜싱)이 지난 28일 일본 지바의 마쿠하리 메세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남자 사브르 단체전 결승에서 이탈리아 선수에게 찌르기 공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보란 없다 장용홍이 지난 28일 7인제 럭비 대한민국 대 일본 11-12위 결정전에서 세루 호세와 공을 다투고 있다.

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의 히로애락이 감동을 주고 있다. 금메달리스트는 물론 패배의 눈물을 흘리는 선수, 온갖 역경에도 투혼을 보여준 선수들의 인생 스토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올림픽 피어들의 환희와 좌절, 열정, 땀을 지면에 소개한다. <편집자주>



제발 달아라 목포여상 출신 여자배구 대표팀 센터 염혜선이 지난 31일 열린 배구 A조 일본과 조별리그에서 몸을 날려 볼을 받아내고 있다.



아자아자 화이팅 김제덕이 지난 26일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우승을 확정 후 포효하고 있다.



도쿄올림픽은 여기까지 계체량 통과를 위해 삭발한 순천시청 유도팀 강유정(사진 왼쪽부터), 마지막 올림픽 무대에서 눈물 흘리는 수영대표 김서영, 태권도 간판 이대훈, 유도 결승에서 금메달을 놓친 조구함, 부상 투혼을 보여준 광주체고 출신 배드민턴 안세영.